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⑫

최초 발심과 구경정각은 두 마음 아니다

涅槃經云 發心畢竟二不別 如是二心前難

범어의 열반은 멸도(滅度)라고 번역한다. 멸도는 커다란 환란이 영원히 소멸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건넌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수행인지의 마음을 발심한 때로부터 구경구과에 이르기까지 따로의 마음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때문에 처음 발심하여 법신자체를 증득하면 몸을 나누어 부처가 될 수 있고, 최후에 이르러서도 법신을 증득하는데 불과하며 역시 몸을 나누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는 수행의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처음 발심할 때에 부처가 되는 것은 수행인지의 마음에서 깨달음의 과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수행한 이후 마음에서 부처가 되는 것도 처음 수행인지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깨달음의 과위가 수행의 인지의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인지의 마음과 과위의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발심을 한 인지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지에서 발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인지에서 발심을 했다 해도 원만하고 상주한 올바른 신심을 갖추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옛사람은 “천리 길도 첫 걸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였고, 또 “높은 누각도 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가령 땅의 기초가 견고하다면 천층만층이라도 마음먹은 대로 건립할 수 있듯이 보살의 발심도 이와 같다. 최초의 발심이 원만하고 상주한 진심을 얻는다면 오십오위(五十五位) 진실한 깨달음의 길도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처음 발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大品經云 須菩提 有菩薩摩訶薩 從初發心即坐道場 轉正法輪 當知則是菩薩為如佛也 法華經中 龍女所獻珠為證 如是等經 皆明初心具作一切佛法 即是大品經中阿字門 即是法華經中為

令眾生開佛知見 即是涅槃經中見佛性故住大涅槃 已略說初心菩薩因修止觀證果之相

범어의 마하는 대(大)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보살 가운데서 대보살에 해당된다. 이들 보살이 최초로 발심하여 도량에 앉아서 사제법륜을 설명할 때가 부처의 경지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여기에서 ‘부처와 같다’는 것은 상사위(相似位)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지 구경각의 부처님이 아니며, 처음 발심주에서 정인, 연인, 요인 등 삼인불성(三因佛性)의 의미가 원만하게 발현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가 견고하면 천층만층 건립할 수 있듯이 발심이 원만하면 오십오위의 깨달음도 성취

또 <법화경>에서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한량없는 증생을 교화할 때 한 용녀가 선군이 맹렬하고 날카로웠는데, 그녀는 겨우 나이 일곱살에 성불하였다.

그 때 그 모임에 있던 대중들은 모두 의혹심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여인은 많은 장애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용녀는 겨우 일곱살에 성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 때 용녀가 즉시 자기의 목에 걸고 있던 영락을 풀어서 세존께 받치고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 영락을 세존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통쾌한가” 하였더니 사리불은 대답했다.

“매우 통쾌하다.”
그 때 용녀는 즉시 남방무구(無垢) 세계에 가서 성불을 하고 모든 증생을 제도하였는데, 이러한 성불은 이와 같이 신속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팔상성도를 나타낸 최초 발심주의 부처님이 것이다.

앞에서 모든 경전을 인용하여 증명했던 것은 조발심에 일체불법을 만족하게 갖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대품반야경> 가운데서 최초의 아자문(阿字文)인데, 바로 사십이위(四十二位)를 비유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법화경> 가운데서 증생을 위하여 부처님 지견을 얻 것이며, <열반경>에서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대열반에 인주한 것에 해당된다.

<법화경>에서는 비록 부처님 지견을 얻다 고 말하기는 했으나 부처님 지견을 보이고 부처님 지견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끝내 깨달아 들어간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열반경>에서는 비록 불성을 본다고 말하였으나 최

초로 발심하는 순간이 도를 증득한다고 순간이며 최후마음도 역시 최초 발심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처음 발심한 일체 불법이 만족한다”라고 하였다.

최초로 발심한 보살이 지관을 수행하여 수행분야만큼 과보를 증득하는 모습에 관해서는 대략 설명이 끝났다.

次明後心證果之相 後心所證境界則不可知 今推教所明 終不離止觀二法 所以者何 如法華經云 殷勤稱歎 諸佛智慧則觀義 此即約觀以明果也

앞에서는 최초 발심한 보살이 수행분야만큼 과보를 증득한 모습에 대해 밝혔으므로 여기에서는 최후에 마음으로 구경구과를 증득하는 모습에 대해 밝혀야 한다.

최후 했을 때의 ‘후’는 처음 발심을 대비해서 한 말로 최후의 일심을 말한다. 그러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뒷 마음을 논변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십주 가운데 제이주를 처음

발심주에 대비한다면 제이주가 후심(後心)이 되며 제삼주를 제이주에 대비하면 삼주가 후심이 된다. 이것은 초지보살이 이지보살의 일을 모르고 등각보살이 묘각의 일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 가르침에서 밝힌 것을 추론해 본다면 증득한 수행만 지관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은 과보 역시 지관을 떠나지 않았다.

대승의 수행도 지관이며 대승의 과보도 역시 지관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추론해서 밝힌다면 오류가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은 따져 묻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법화경>에서 세존이 무량외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서 서서히 일어나 말하기를 “제불지혜는 매우 심오하고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론은 이해하기도 깨달아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며 은근히 모든 부처님 수행방편론에 대해 칭찬하였다.

비록 방편법문은 한량이 없으나 귀결점은 하나이다. 이는 방편에는 많은 수행론이 있으나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두 갈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두 길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한량없는 방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관’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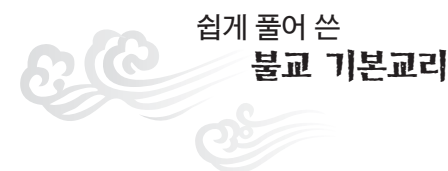
문자반야(文字般若)를 따라서 관조반야(觀照般若)를 일으키고 관조반야를 따라서 실상반야(實相般若)에 일치하게 된다. 문자반야는 뜻목과 같고 관조반야는 뜻목을 찾는 것과 같고 실상반야는 피안에 도달한 것과 같다. 이는 관 수행론에서 부처님 극치의 과보에 대해 밝힌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문태이프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소지관)와 호법유사의 비평서적> 새로운 유식학의 집권자인 유식학의 신유식문 태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종열반(四種涅槃) 2

인생의 고뇌는 한량이 없기는 하지만 이를 요약하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제5권을 살펴보면 사리불(舍利佛) 존자가 나구라(那拘羅) 장자에게 “나는 육신은 고통스러우나 마음만은 괴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제자는 선경과 지혜를 닦아 청정한 경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늙고 죽는 일은 육신에 있어서 최대의 고통이건만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만은 태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의 고통에서 해탈을 할 수 있다 해도 육신의 고통은 순간에 소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입니다. 이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번뇌는 초월하였으나 육신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유여의열반, 즉 고통이 의지할 육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음만은 안락한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입니다. 이는 번뇌가 깨끗이 다하여 윤회로부터 이미 해탈하였고 현재의 육신마저도 버림으로써 끝내 청량한 열반의 경지에 은몰하여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여의열반이라고 합니다.

<중아함선인왕경(中阿含善人往經)>에서는 “착한 사람은 현세가 다하면 거듭 생사를 받지 않는데, 이를 무여의열반이라고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반에는 인간 세상에 거듭 찾아와서 생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세를 멀리하므로 현세에 염증을 느끼는 염세적 의미가 있는 듯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출가하셨는데 이도 역시 염세의 뜻이 있는 듯 하지만 도를 성취하신 이후엔 결코 염세심을 일으키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설상에서 하산하여 사십 구년간의 장광설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원력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자비행에 있습니다. 가령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이후 무여의열반에 바로 들었더라면 그것은 중생구제라는 본원의 이치와는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승 법상유식(法相唯識)에선 열반을 다시 사종 열반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리=張如舟

부처님의 수행방법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본불교에 입각한 교리강좌와 수행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안마 파옥 센터 우레와따 사야도 초청 집중 수행
수행일정 : 1차 2009년 6월 1일 ~ 6월 7일
2차 2009년 6월 8일 ~ 6월 14일
3차 2009년 6월 15일 ~ 6월 21일
4차 2009년 6월 22일 ~ 6월 28일
입실시간 : 오후 5시 까지, 장기수행 가능
준비물 : 편안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개인컵
저녁 법문 무료 (오후 7:00 ~ 8:30)
 - 외부 특별 법문
일 시 : 6월 20일 (토) 오전 10시 ~ 1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 사마타 위빠사나 명상 (진경스님 지도)
일 시 : 2009년 6월 6일(토) 2시~6시까지
장 소 : 전국 비구니회관 (법통사) 02-3411-8103
참가비 : 1만원 (전철3호선 일원역)
 - 봉인사 사마타 위빠사나 명상
일 시 : 2009년 5월 15일 ~ 24일 까지
매월 9박 10일 간의 집중수행이 있음
장기수행도 가능 <언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 : 봉인사 031)574-5585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전문성이 남다른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로 도와드립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특허청 실용신안 제 28054호

옥외촛불대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재질
50개꽃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리스
100개꽃이	150cm	90cm	150cm	플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영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76-0160 / H·P 011-269-3356
E-mail : byoon47@yahoo.co.kr